

# 전남도 ‘공공·소아응급·산부인과’ 필수 병상 늘린다

도, 병상수급 관리계획 마련  
목포권 등 6개 중진료권 분류  
최근 5년 병상공급량 등 기초  
의료기관 신규개설 절차 강화

전남도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 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남도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관리계획(안)’을 마련을 위해 지역전

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안은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병상 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맞춰 전남도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목포권·여수권·순천권·나주권·해남권·영광권 등 6

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했다.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유출입 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해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세웠다.

분석 결과에 따라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조정 지역에 대해선 앞으로 병상 공급을 점차 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다만 전남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분야, 소아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은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신규 증설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100명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병상 공급 과잉 지역에 속한 전남도의 병상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 무분별한 병상 증가로 인한 입원 의료비 증가, 지역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립한 제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은 보건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의 병상수급·관리계획 조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 광주시 ‘디어 마이 광주’ 연말연시 이벤트 진행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 마이 광주’ 연말연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이 주목할 만한 지역문화공간과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찾아가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지정 문화공간은 시민의 추억과 휴식의 공간이자 올해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단장한 사직공원 ‘사직 빛의 숲’, ‘금남 나비정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동방제일 누각 ‘희경루’ 등 광주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3곳이다. 이 장소들은 도심 속에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광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야외 문화공간들이다. 특히 ‘사직 빛의 숲’의 공간 중 하나인 사직공원 G타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관한 ‘2023년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문화행사는 광주문화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광주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등 지역의 주요 핵심 문화예술공간을 비롯해 광주 곳곳에서 열리는 ‘디어 마이 광주’에 소개된 전시, 공연, 행사다.

참여 방법은 ‘디어 마이 광주’에 회원 가입한 후 이벤트 지정 문화공간 또는 ‘디어 마이 광주’에 소개된 지역 내 문화행사를 방문해 ‘커뮤니티’에 사진인증, 티켓인증 등을 하면 된다. 인증 피드에는 이벤트 참여 해시태그를 등록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벤트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6명을 선정, 김치냉장고와 치킨·커피 등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디어 마이 광주’ 웹사이트(<https://dmgj.kr/>)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우리밀 지원사업 ‘최대 성과’

광주시가 10여년간 지속해온 우리밀 지원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평가에서 광주지역 생산단지인 한국우리밀농협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은 밀산업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현장에 확산시켜 전국 밀 생산단지의 전문화,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자체 자체 평가와 전문가단을 구성,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72개소 중 최종 7개소를 2023년 우수국산밀

생산단지로 선정했다.

광주지역 밀 생산단지인 한국우리밀농협(대표 천익출 조합장)이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우리밀농협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 2024년 농식품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8월 ‘광주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지원(10억원), 생산비 지원(3억원), 시설·장비 등 경영체 육성 지원(1억원) 등 10여년 동안 약 60억원 규모의 우리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전남도, 전북도에 이어 전국 3위의 국산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과기장관 표창

전남도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2023’에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앞서 전남도는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정책에 발맞춰 자체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대국민 서비스용 누리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 내부 핵심 시스템인 온나라전자결재 시스템을 22개 시·군과 공동으로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했다.

행정기관 국가정보통신망에 민간 클라우드를 연계한 첫 사례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의 성공 사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내부 시스템의 클라우드화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클라우드뿐 아니라 데이터 산업의 기본 기반 시설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우수 시·군 자원봉사 센터 포상 및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우수기업 현판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 최근 1년새 온실가스 9만9천톤 감축

## 30년산 소나무 1502만 그루 효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시가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10만8000여 명에 대해 지급한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가 12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포인트를 온실가스 감축에 대입해 보면 9만911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502만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하고 포

인트를 받는 에너지 부문과 자동차 운전자 주행거리를 감축하고 포인트를 받는 자동차 부문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전기·수도·가스) 부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간 감축한 시민 5만367세대를 대상으로 5억9800만원을 올해 6월 지급했다. 또 올해 상반기 에너지를 절약한 5만6021세대에게 5억200만원을 12~13일 지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획득한 탄소중립포인트는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 받는다.

자동차 부문은 올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분석해 1643명에게 1억1600만원을 12월 초에 지급했다.

특히 광주시는 전체 63만여 세대 중 58%가 넘는 36만여 세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 가입해 가입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에너지 부문 가입 희망자는 누리집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부문 신규 가입은 신청기간(매년 2~4월)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해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 대책상황실 운영

## 내년 3월까지

전남도가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

전남도는 12일 겨울 재해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에게 한파·폭설 등 재해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울겨울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경우 기온하락 폭이 크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폭설 등 재해 발생 시 농작물과 분야별 농업 시설물 관리, 독거노

인 등 취약 농업인 야외활동 자제, 응급대처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을 반장으로 재해총괄팀, 초동대응팀, 시설원예팀, 축산팀을 구성해 내년 3월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 등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계획을 22개 시·군과 공유했다.

계획에 따르면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보강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눈이 오는 날은 수시로 하우스 눈을 쓸어내리고, 가온 시설이 있는 하우스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시켜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겨울철 농작물과 시설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 대응 안전 수칙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해복구를 위해 경찰청·소방청·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와 강화된 긴급출동 협력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최황지 기자